

말김의 능력

(The Power Of the Commitment of Kingdom of God)

오늘은 말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시편 37 : 5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시편 37 : 6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지금 세계는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이렇게 어려운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신앙인인 우리는 이 난국 어떻게 헤쳐 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놀라운 해결의 방법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말김입니다.

모두 말김이면 이루어주시겠다 하십니다. 모두 말김이면 하나님 손길이 움직여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축복을 받기 위해 말김에 대해 잘 알아 이 난국을 해결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시 37:5-6을 읽어 보십시오.

시편 37 : 5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시편 37 : 6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모든 일을 맡긴다는 말의 의미

우리는 인생을 살아 가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는 의식주의 문제로 부터 시작하여 건강에 대한 걱정, 일의 성사에 대한 염려, 자존심, 인간간의 문제, 삶의 계획 등 만가지 짐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한국 부모들에게는 자녀 교육, 진학 문제가 큰 짐으로 작용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 : 28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맡아 처리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나 맡기면 쉬게 해주시겠다 하십니다. 온전히 벗어 맡기면 주님의 손길이 움직여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읽은 시 37 편은 다윗의 인생 말년에 지은 시입니다¹.

말년의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하게 권면한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시편 37 : 5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너의 짐을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은 문제 해결의 길입니다.

네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겼느냐?

이것은 신앙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질문입니다.

먼저 **맡기다 ; commit** 에 대해 공부를 해보십시오.

맡긴다는 말은 commit 인데 자기 자신에 대한 주권을 다른 대상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To Give In Authority To Somebody

그래서 이 말은 자기 인생의 모든 일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는 말은 “네 인생의 제반사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짐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운 삶, 행복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맡긴다는 말이 여러 가지 용어를 번역한 말입니다.

먼저 우리 시 37:5 을 읽어 보십시오.

시편 37 : 5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²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1. ²⁵ | have been young, and now am old; yet have I not seen the righteous forsaken, nor his seed begging bread.

2. Commit thy way unto the Lord—גִּוַל עַל יְהוָה gol al Yehovah, ROLL thy way upon the Lord: probably, a metaphor taken from the camel, who lies down till his load be rolled upon him. —Adam Clarke's Commentary

Commit thy way unto the Lord; trust also in him; and he shall bring it to pass³.

5 절에서 주요한 말은 말긴다는 말과 이루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긴다는 말은 *gaw-la*(1556)로서 - commit 의 입니다. 말기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어 이루시겠다는 말입니다. ‘이루시겠다’ עשה *yaaseh*, "He will work."

잠언 16 : 3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라

Commit thy works unto the Lord, and thy thoughts shall be established.

이 구절에서 **맡기라**가 *gaw-la*(1556) - commit 의 입니다.

이 골랄은 어떤 뉘앙스를 가진 말이나 하면, 낙타의 등에 짐을 올려 놓아야 낙타가 짐을 지고 간다는 말입니다. 짐을 벗어 낙타 등위에 올려 놓지 않으면 낙타는 이짐을 지고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짐을 벗어 하나님의 등위에 올려놓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라(establish) 하는 것입니다.

네 손에 든 것을 나를 믿고, 내등에 올려 놓으면, 이루시겠다는 말입니다.

시편 55 : 22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⁴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Cast⁵ thy burden upon the Lord, and he shall sustain thee: he shall never suffer the righteous to be moved.

이 구절에서 **맡겨 버리라**(Cast)는 *shaw-lak* 이라는 말로서 던져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shaw-lak* 은 짐을 완전히 털어, 던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³. He shall bring it to pass—עשה *yaaseh*, "He will work." Trust God, and he will work for thee. —Adam Clarke's Commentary

⁴. *epirrhipto*, Greek 1977, Strongs

ep-ir-hrip'-to; from Greek 1909 (*epi*) and Greek 4496 (*rhipto*); to *throw upon* (literal or figurative) :- cast upon.

⁵. *shalak*, Hebrew 7993, Strongs

shaw-lak'; a primitive root; to *throw out, down or away* (literal or figurative) :- adventure, cast (away, down, forth, off, out), hurl, pluck, throw.

신약에서는

베드로전서 5 : 7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Casting all your care upon him; for he careth for you.

시편 31 : 5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⁶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Into thine hand I commit my spirit: thou hast redeemed me, O Lord God of truth.

이 구절에서 부탁하나이다는 *paw-kad'*라는 말로서 법적 권한을 주어 위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열왕기상 14 : 27 에서는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장관의 손에 맡기매 할 때 쓰였습니다.

열왕기상 14 : 27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놋으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장관의 손에 맡기매

And king Rehoboam made in their stead brasen shields, and committed them unto the hands of the chief
of the guard, which kept the door of the king's house.

이 말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는 것과 같습니다. 법적 권한을 주어 완전히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한 아래 주권을 포기하고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같이 여러가지 말이 있지만 맡긴다는 말의공통된 의미는, **commit** 인데 자기 자신에 대한 주권을 다른
대상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자기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까지도 자신의 운명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인생의 제반사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모든 집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운 삶, 행복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집을 맡으시고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십니다.

⁶. *paqad*, Hebrew 6485, Strongs

paw-kad'; a primitive root; to *visit* (with friendly or hostile intent); by analogy to *oversee*, *muster*, *charge*, *care for*, *miss*, *deposit*, etc. :- appoint, × at all, avenge, bestow, (appoint to have the, give a) charge, commit, count, deliver to keep, be empty, enjoin, go see, hurt, do judgment, lack, lay up, look, make, × by any means, miss, number, officer, (make) overseer, have (the) oversight, punish, reckon, (call to) remember (-brance), set (over), sum, × surely, visit,

신자들의 행복한 사람, 능력있는 삶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미안해서 못 말기겠어요, 누추한 것도 만거든요. 할 사람은 없습니까? 그러나 염려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짐이든지 우리의 짐을 져 주시길 원합니다.

시편 68 : 19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 할지로다

이 구절에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 주신다는 말은, 우리의 일상적인 소소한 것도 다 져주시는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1. 다음에 우리는 말기지 못하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기지 못하는 삶의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읽어 보십시오.

마태복음 6 : 28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마태복음 6 : 30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큰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마태복음 6 : 32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지금 우리가 읽은 구절에서 믿음이 적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의식주의 염려에 매인 사람들입니다. 문제 앞에서 염려하는 사람들!

코 앞의 문제에 매여 문제만 크게 보고 하나님은 못보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종종 다 맡겼다고 하면서도 이런 삶의 태도를 계속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이런 사람은 다 맡긴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이방인과 같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같다는 말입니다.

삶의 짐에 눌러, 자유를 잃고, 환경에 지배를 당하는 사람은 이방인과 같다.

마태복음 6 : 30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큰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마태복음 6 : 32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는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나 걱정, 그런 것이 남아 있다면, 아직 말기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고 하면서 염려 걱정을 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works)이, 짐으로 느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차에 올라 타면 짐을 벗어 기차 안에 내려 놓습니다. 기차에 올라 탔는데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목적지까지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 생활도 이와 똑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자신의 삶의 필요를, 모든 짐과 문제의 해결을 벗어 주님께 맡기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진실로 말기워지면 염려 근심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마음의 평안이 계속됩니다. 이것이 다 말기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책임을 져 주십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됩니다.

온전히 말기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루 하루의 신앙 생활은 이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히 말기워지면, 마음과 일상 생활은 비워져 있어 마치 말씀의 연못 위에 떠 있는 잎과 같습니다.

II. 말기는 과정

일을 이루는 데는 과정이 있습니다.

맡겨라- 그러면 이루어주리라.

맡겨라- 그러면 이루어주리라 하는 것은 처음부터 일이 끝날 때까지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결정을 맡기라는 것이요, 일을 이루는 방법도 맡기라는 것이요, 이를 '때' 도 맡기라는 것입니다. 전과정을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1. 모든 일의 결정권을 왕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결정권을 자기가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이 판단의 주체입니다. 경험과 지식에 의한 근거를 가지고 자신이 결정하길 바랍니다. 또 모든 사람은 자기가 좋아 하는 것 싫어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싫어 하는 것은 버리는데 익숙합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싫어 하는 것을 버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버리는데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기도의 응답은 언제나 손위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 : 39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도 소원이 있지만, 나의 소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모든 일의 결정권을 왕이신 하나님께서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결정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내가 싫어 한다는 말입니다.

또 나의 경험과 지식에 의해 결정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말씀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제가 겪은 일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들 모세는 General Surgeon 인데 Intern 과정을 곧 끝내고 Residence 를 곧 시작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결혼 안한 간호원들을 만날 기회가 많습니다. 지난 번에 집에 왔을 때 자가가 지금 인도 여자와 사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부모는 인도 사람이지만 개신교 교인으로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였고, 그 여자는 아주 열심히 기독교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모세가 그 여자를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중생한 기독교인이면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허락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우리 가정에 큰 문제이니 하나님께 기도하자” 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 하는 중 내가 그 여자를 잠재 의식에서 거부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국 생활을 오래하여 외국 여자를 개의치 않는다고 말은 하여도, 한국 사람은 한국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 마음 속의 선입견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를 주일 날 하루 종일 하고 다녔습니다. 이튿날 아침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 왔습니다.

“ 그 여자는 네 아들의 신부감이 아니다” 아주 분명하고 clear 했습니다. 이 응답을 받고 나니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아들한테 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인도 간호원을 좋아 하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상처없이 말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나는 이것을 집사람 한테만 이야기를 하고 모세에게 아무 소리도 못하고 하루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빠보다 부드럽게 상처없이 말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 소리를 듣고 처음에는 당황하였으나, 나중에 그 여자에게 상처 받지 않도록 지혜롭게 말하고 끝냈다고 하였습니다. 이와같이 하나님께 결정권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면 비록 자기에게 싫은 것이라도 순종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결정권을 양도한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좋아 하는 것, 싫어 하는 것에 따라 결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말하는 것은, 일을 이루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너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2. 너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네가 의지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이루라!

네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있느냐?

자기가 의지하는 대상을 내어 던져야 합니다, 이런 사람 만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의지하는 대상을 하나님께 이전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 분들이 많이 들은 예화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낭떨어지에서 떨어지다가 나무 뿌리를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살려 주세요.”

그 때 하나님은

“네가 붙잡은 것을 놓아라 그러면 내가 구해 주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려고 붙잡은 것을 놓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이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한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에 든 지팡이를 놓아라”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는 광야에서 양떼를 키우는 목자에겐 필수품입니다. 이것을 던지라고 하는 것은 네가 의지하는 그 것을놓으라 하는 요구이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팡이를 내어 던지자 그것은 뱀으로 변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에요?

네가 붙잡고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너를 물려고 달려 드는 뱀과 같은 것이다. ‘그것을 놓아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잡아라” 하셨습니다.

뱀의 꼬리를 다시 잡았을 때 이것은 이스라엘 삼백만을 인도하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있느냐?

자기가 의지하는 대상을 내어 던져야 합니다, 이런 사람 만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의지하는 대상을 하나님께 이전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 결단을 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 결단을 해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자기 것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힘듭니다. 자기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자꾸 벗어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점점 하나가 되고, 풍성해진다.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드림은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운명과 미래를 모두 맡기는 것입니다.

3. 다음에 말한다고 하는 것은 이루는 때를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아무리 능력있는 농부라도 추수 때를 당길 수 없음과 같이,

아무리 능력있는 기도자라 할지라도 때를 당길 수 없습니다.

때는 하나님의 절대적 권한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합하게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때에는 늦음도 이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3 : 1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전도서 3 : 17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를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그래서 우리는 때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시간을 지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7 : 5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시편 37 : 6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고 나서 곧바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고 합니다.

시편 37 : 7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이것은 불신자처럼 안절 부절하지 말고 여호와 앞에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참으로 좋은 말은 “참아”!

하나님의 때까지 참고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아직 육성이 제거되지 않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때를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말김이 주는 참다운 안식에 들어 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긴다고 하는 것은,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 만을 의지 하고,, 이를 때를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맡길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여정에서 이렇게 맡기고 살 때 하나님은 이루시고, 우리의 생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자유와 기쁨이 계속됩니다. 안식의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III. 말김의 예 : 여호사밧

저는 오늘 아침 기도 하는 중여호사밧의 이야기로 심각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호사밧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은 왕이지만 비지네스에 있어선 선명성이 희미한 유대왕입니다.

여호사밧은 종교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미워하신 바 되는 북왕국의 아합왕과 동맹을 하고 연혼을 하였읍니다(대하 18:1).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은 징계로(19:2)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로 쳐들어 왔읍니다. 미쳐 손을 쓸 틈이 없이 적군은 깊이 쳐들어 왔읍니다.

이 때 여호사밧은 많은 군대가 있었지만, 모종의 군사적인 조처를 먼저 취하지 않고, 자신의 과오를 회개하고, 전국적인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였읍니다.

역대하 20 : 3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낮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위기의 상황에선 금식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여호와의 신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읍니다.

역대하 20 : 15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대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역대하 20 : 16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 가라 저희가 시스 고개로

말미암아 올라 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역대하 20 : 17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적군이 물밀듯 밀려 오는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적군
앞에 설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가 의지하려고 하던 것들, 다 던져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서라!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결단을 해야 합니다. 양다리를 걸치려 하면 안됩니다.

여호사밧은 군대를 정비하고 나가는 대신, 성가대를 조직하여 적들을 향해 나갔습니다.

하나님 만을 의지하였습니다.

역대하 20 : 21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성가대를 조직하여 나갔다. 죽어도 노래를 부르며 죽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의 공포를 능가하는 성령의 기쁨이 온 무리에게 내린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기쁨과 담대함은 신적인 것입니다. 이런 신적 기쁨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따릅니다.

여러분은 왜 이런 큰 기쁨이 왔다고 믿으세요?

회개하고 금식했기 때문입니다.

비상시국에는 금식하며 매달려야 합니다.

무슨 일이 생겼나 보십시오.

역대하 20 : 22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시므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역대하 20 : 23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역대하 20 : 24 유다 사람이 들 땅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없드러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바로 이말이 응답되었습니다. 여기엔 인간이 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끼리 싸우게 만드셔서 하나도 살아 남은 자가 없게 하셨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역대하 20 : 25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할새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고로 각기 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취하고

역대하 20 : 26 제 사일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브라가 골짜기란 말은 The Valley of benediction, 축복의 골짜기
그 때부터 오늘까지 축복의 골짜기라고 불렀더라. 역사적 사실입니다.

축복을 받으려면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하나님의 결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 말씀만을
믿고 나가고-그 능력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여기서 여호사밧이 있었던 영적 상태가 다말기워진 상태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안식의 상태입니다.
말김으로 인하여 성령이 주시는 안식의 상태에 도달하면 환경이 어떻든, 사람이 무어라 하든,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 평안과 담대함에 들어 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에서 여호사밧처럼 이런 담대한 평안에 들어 갈 수 있습니까?

이런 절대적 평안과 담대함에 도달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입니다.

신약에서 바울과 실라는 여호사밧과 비슷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전도를 하다가 붙잡혀
매맞고 착고에 채여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한밤중이 되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말기고,
찬미하고 기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6 : 25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사도행전 16 : 26 이에 홀연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홀연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저는 신앙이 어렸을 때는 이 말이 실감이
안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것을 사실 그대로 믿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캄캄하더라도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고, 죽으면 죽겠다는 결단을 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여 문제가 해결됩니다.

금식으로 매달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나타 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런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 언제나 문제가 더 커 보입니다.

그러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면 문제는 작아지고 하나님만 보입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이 온 영혼을 휩쌌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겐 문제는 있으나 마나라는 담대함이 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신 말씀이 실현됩니다.

요한복음 14 : 12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요한복음 14 : 13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4 : 14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라! 네 삶의 주인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모든 능력이 오는 시작은 말김에 있습니다.

맡기고 안식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기도하면 믿음이 온다.

그러면 일이 이루어라!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 당기는 지남철입니다.

축복받는 신앙 생활의 근본 원리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때만 가능합니다.

영혼의 잘됨의 축복이 넘칩니다. 강건의 축복이 넘치며, 범사가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8 : 11 나 여호와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케 하며 네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기독교인이 행복해질 수 있는 오직 한 길입니다.

이 글이나 인터넷 방송을 들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5분만 시간을 내셔서 저의 twitter 나 café 에나, Blog 에 가셔서 소개의 글을 올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조그마한 노력으로 수많은 사람이 읽고 듣게 됩니다.

- Café 명 : 믿음의 향연

<http://cafe.naver.com/Christiansymposium.cafe> 이나

- Blog 명 : 행복의 샘터

<http://blog.daum.net/shk2812> 이나

- * twitter

1. <http://www.twtkr.com> 으로 가셔서 로그인을 하세요.
2. 바울성서 아카데미(spba0708)에 접속하여 Follower 등록을 하세요
(twitter 안에서검색 box 에 spba0708 을 넣으신후 click 하면 접속됨).
3. 내 twitter 의 home 으로 가서 글을 쓰신 후 tweet 하세요.
4. 제가 twitter 에 올린 글(예, example)

성령님이 인격자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말씀으로 지배한다는 뜻이고, 우리는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으면, <http://www.stpaulbibleacademy.com/3FCFContents.html>

여섯째주를 공부하시길!